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므로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 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법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와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 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던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라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법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개역, 창세기 39:1-23]

지 난 설날에 했던 설교인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향에 가버린 탓에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망스런 상황에 부닥칠 때 어떻게 이겨냅니까? 팔자소관이라고 치부합니까? 아니면 타고난 운명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선 참 좋은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해 줍니다. 최근에는 아이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주로 무슨 문제입니까? 사고 많이 치는 아이들이 자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도 아주 잘 하는 모범생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어른들은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남이 당한 고통은 크게 못 느낍니다. 쉽게 비난하지요. 그러나 정작 자신들에게는 심각한 겁니다. 이런 고통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을 수 있고 다 큰 어른들에게도 언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닥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를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냈을까요?

요셉은 어린 시절에 참 행복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혀서 귀하게 키웠습니다. 형들은 전부 양 치러 나가서 열심히 일할 동안에도 요셉은 아버지와 집에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요셉이 특별히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만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그 아버지가 부인이 여럿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낳은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사랑했던 부인은 묘하게 일찍 죽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아마 이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그가 어느 날 꿈을 꾸고 그걸 다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하루는 들에 나가 곡식을 다 묶었는데 곡식 단들이 다 일어나더니 형님들의 곡식 단들이 자기가 묶은 단을 보고

절을 하더라? 형님들이 듣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성경에는 언사가 불편하였더라고 합니다. 좋은 말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쯤 그랬으면 눈치를 쫓을 일이지 또 어느 날 꿈을 꾸고 난 뒤 엉뚱한 꿈 이야기를 하죠. “하늘에 열한 별들이 나를 둘러서더니 나를 향하여 절을 하는데 별만 절을 하는 게 아니고 해와 달도 절하더라.”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화를 좀 냈지요. “감히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네게 가서 절한단 말이나?” 하고 화를 냈는데도 아버지는 그 말을 머릿속에 새겨 두었습니다. 그러나 형님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모릅니다.

어느 날 형님들이 먼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멀리서 동생이 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거든요. 멀리서 오는 동생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라고 합니다. 꿈쟁이가 오는데 저 놈의 자식을 죽여서 꿈이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보자고 하는 겁니다. 형님들이 얼마나 악이 반겼으면 동생을 죽여서 없애 버릴 생각까지 다 했을까요? 그래서 형님들이 동생을 죽일 궁리를 했고 그 형님들 중에 한 명이 우리 손으로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고 해서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 버렸습니다.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이라는 고관의 집에 팔려가서 가정 총무를 하다가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전옥의 은총을 받아서 간수 일을 돕다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뛰어 오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들은 재미있다고 합니다. 성경이 재미없으시면 창세기 뒤쪽 이 부분을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소설보다 더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위낙 높은 자리에 올라간 탓에 요셉의 고통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남의 고통이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 데다 결말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겪은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치고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 있을 때에 가장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였겠습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아닐까요? 두고 온 고향이 얼마나 그리웠으며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반면에 형들을 생각하면 ‘저것들이 나하고 피를 나눈 형이난 말이야? 언제 만나기만 해 바라!’ 이러면서 이빨을 갈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까지 읽어봅시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와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어디에 상했다고요?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그랬죠? ‘그 몸이란 말을 잘 보세요. 글자 위에 아라비아 3자가 쓰여 있나요? 그러면 난외주 3을 보세요. ‘히,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따르면 혼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번역할 수도 있고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번역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발이 착고에 상하고 몸이 혹은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표현은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 고통이 19절에 보면, ‘여호와와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합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그 고통이 결국은 저를 단련하였다고 말합니다. 단련이라는 단어는 요셉이 얼마나 그 안에서 혹독한 시절을 겪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요셉이 겪었던 고난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애굽으로 끌려가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이며 끌려가서 처음에 어디에 갔겠습니까? 노예시장에 갔겠죠. 노예시장에 가면 어떻게 사고팔아요? 혹시 소 사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소를 뭐 보고 사나요? 이빨 보고요? 이빨을 보면 건강상태 다 알 수 있죠. 요셉도 팔릴 때 ‘입 벌려 봐!’ 안 그랬을까요? 이빨만 보면 되나요? 색동옷 입고 즐겁게 지내던 그가 노예시장에 끌려갔으니 인격적인 대우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제가, 아이들이 대체로 그렇겠지만 목욕 가자 하면 참 싫었습니다. 목욕 안 가려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참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군에 간다고 신체검사 하러 갔는데, 학교에서 매년 신체검사 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참 싫대요. 왜 싫은지 남자들은 아시죠? 그것도 싫은데 하물며 노예시장에 내놓았을 때 사람들이 노예를 사 가기 위해서 무슨 검사를 다 했을까요? 그 장면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만한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고향 생각하며 도대체 어떻게 지낼 것인지 고민하던 요셉을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가 당한 어지간한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요셉만큼 그렇게 절망적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요셉이 “이래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아마 첫번째가 형님들에게서 팔려 갈 때 아닐까요? 모르긴 몰라도 삶에 대한 의욕이 깨끗이 상실되었을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형님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형님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아마 인간이 싫다는 말이 나올만 합니다.

좌우간 팔려 갔습니다. 팔려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조금 형편이 나아졌죠? 아니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나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이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니 역적이거나 반역죄에 해당되는 죄수들이 갇힌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웬만하면 나올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갇혔을 때에 또 절망했을 수도 있죠.

요셉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었던 것은 거기에 들어왔던 죄수 두 사람입니다. 해몽을 잘 해 주면서 한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자기의 꿈 해석대로 살아나가면 “나를 꼭 기억해 달라. 난 잘못이 없다.” 얼마나 눈 빠지게 기다렸을까요? 자기 꿈대로 되었거든요. 그리고 복직이 되어서 장관노릇을 하고 있던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억울함을 호소해서 나를 불러내 줄 것이라고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실제로 얼마를 기다렸죠? 그 분이 나가서 요셉을 깨끗이 잊어버렸습니다. 만 이년이 흘러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다림이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삶의 희망을 버릴만 한대도 요셉은 끄떡없이 견디어 냈습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면서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까. 요셉에게 꿈이 있다면 무엇이었겠어요? 거기서 출세해서 총리가 되는 것? 그러지 마세요.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셉에게 단 하나의 꿈이 있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것 이상의 소원이 없었다고 봐야죠. 어떻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 문제를 골똘하게 연구하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면 무엇을 어떻게 이용해서 고향으로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잘 이용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생깁니다. 영화 많이 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영화에서는 주로 미인계를 잘 쓰죠. 여자를 잘 이용하면 탈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그 힘을 잘 이용만 하면 탈출해서 고향으로 내뺄 기회가 있겠다 생각하고 보디발의 아내와 눈을 좀 맞춘다면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라 이렇지 일반적인 소설이나 영화 같으면 틀림없이 그런 방법으로 해서 국경까지 바람 쏘이러 나가든지 어떻게 나가든지 해서 내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상상력이 풍부한 겁니까? 아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탈출은 아니더라도 보디발의 아내가 날 유혹하고 있는데 거절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함께 노는 게 쉬울까요? 인생을 즐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전에 언제 신문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하도 기가차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걸 읽어주었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요점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자유스럽지 못한 주원인은 성적인 억압에 있다. 그래서 순결을 강조하고 건전한 성생활을 강조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본이 된다. 그래서 성적 억압을 철폐하라. 청소년들이 순결이니 뭐니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남녀가 함께 충동을 느낄 때는 마음껏 하게 해야 된다. 결혼은 필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을 구속하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런 주장이죠. 제가 그걸 다 읽고 “애들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니깐 한 녀석이 정말 명답을 하더라고요. “그냥 개같이 살자는 뜻이네요!” 아주 명답이었습니다.

이런 글이 신문에 버젓이 실린다? 이런 설명을 해야 할 때마다 사용하려고 가방에 잘 넣어 다녔는데 얼마 후에 잃어버렸습니다. 참 아깝더라고요. 영남일보 몇 월 달인지 이걸 어떻게 찾나 하고 얘기를 했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그런 글이 신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찾으려고 하면 인터넷에 들어가 그 사람 이름만 딱 치면 수북이 나옵니다.” 하더군요. 그 사람이 그런 글을 많이 써 놓았대요. 누군지 아마 아실 겁니다. 현 시대가 그렇습니다. 인생을 즐기자, 즐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적인 억압을 다 철폐하라는 겁니다. 바람 피우고 싶으면 마음대로 피우고, 이 나이 들도록 애인 하나 없으면 처녀 총각 두고 가리키는 것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이 애인 하나 없으면 말도 안되죠. 한 때는 애인이 없으면 팔불출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이나 그 때나 사람 사는 사회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런 식으로 즐기려고 마음만 먹으면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물래 먹는 떡이 맛있고 훔쳐 먹는 떡이 맛있습디다. 학교 아이들이 만화책 얼마나 재미있게 보는지 아십니까? 국어책 퍼놓고 그 안에 만화책 끼우고 있으면 대체로 들켜요. 앞에서 보면 표가 나요. 만화책 보다가 한 번씩 선생님도 쳐다보다가 조금 가다보면 선생님 잊어버립니다. 여기 흘랑 빠져가지고 있으니까 들킬 수밖에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십니까? 도시락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은 수업 중에 까먹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잠시 돌아섰을 때 잼싸게 한 손가락 입에 딱 털어놓고, 선생님이 보면 가만히 있다가 돌아서면 씹고, 잡아놓고 보면 기가 차지만 그래도 본인은 스릴 만점에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맛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디다.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깨끗하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면 누구에게 범죄하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누구에게 범죄하는 거죠? 보디발에게 범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보디발에게 범죄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함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은 적이 없는 것이 요셉의 큰 특징입니다.

저 여자를 잘만 이용하면 이 지긋지긋한 곳을 탈출해서 고향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으냐를 먼저 따지는 것 때문에 이런 큰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잠시만 눈 좀 감아주시면 정말 큰 거 한 건 할 수 있겠다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정말 아까운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만 한 번 눈감아 주시면 좋겠습디다는 유혹이 종종 들지요. 그것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게 아니다 생각하고 정도를 따라 걷는 길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형통한 길입니다. 본문에서도 요셉이 형통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므로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39장 3절을 보세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범사에 형통케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표현이, 20절 끝에서 21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라는 표현이 있고, 23절 제일 끝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형통이 뭐니까? 우리는 여기에 한 자 더 붙여서 만사형통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만사형통이란 어떤 걸 말하죠? 가만히 뒹굴고 있는데도 일이 저절로 풀리는 겁니까? 요셉의 경우에 만사형통이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일이 저절로 풀리더라? 그게 만사형통입니까? 우리 식으로 생각해서 요셉이 만사형통하려면 노예로 팔려왔는데 저절로 일이 척척 풀려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만사형통이면 어떻게 됩니까? 누명이 곧 벗겨지고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요? 만사형통인데 여전히 보디발의 집의 종입니다. 그러다가 억울하게 감옥까지 또 들어가 버립니다. 거기 갔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셨는데 여전히 감옥에서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 위로해 주신 것 이걸 가리켜서 만사형통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만약에 이걸 위에서 떨어진 것이라면 어느 정도 떨어진 것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천국에서 지옥까지 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 정도 떨어

졌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높여주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자리까지 높여주셨습니다. 총무는 총무지만 여전히 신분은 종이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조금 올라왔습니다. 형통케 되었지요?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감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얼마만큼 떨어졌나요? 아주 깊은 수렁의 끝짜기에 떨어졌습니다. 감옥에 갇혔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추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얼마만큼 올려주셨나요? 추락한 것은 엄청나게 추락하고 올라온 것은 많이 올라온 것 아닙니다. 조금 올라왔어요. 조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깨끗하게 풀려질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만사를 형통케 하신다는 것은 견뎌 낼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조금 힘을 북돋아 주시는 정도가 아닐까 적어도 요셉의 삶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형님들에 의해 팔려간 것과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살 아갈 힘이 없을 그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해 주셔서 조금 높여주시고 재차 더 깊은 수렁으로 떨어졌을 때 또 조금 높여주시며 힘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였고 그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도 부요하고 영적으로도 풍족하게, 결국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면서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하늘 나라로 오나라? 하나님의 뜻이 그것일까요? 어차피 이 땅에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험하고 불행한 일들이 많이 닥쳐오게 마련입니다. 내가 나를 믿는다면 이 어려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라, 믿는 신자답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를 성경에서 한 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어 멋지게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찾기 힘들 겁니다. 바울을 볼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쨌거나 출세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얼마만한 고난을 받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그걸 후회했나요? 아닙니다. 바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면만 본다면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물질적으로는 한없는 고통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바울만큼 부유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잘 살고 있는 그를 불러내서 가라는 거예요. 일가친척 떠나서 가라는 겁니다. 가서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 망신을 당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참으로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았습니다. 물론 뒤에 가서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가 되었죠.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명을 받고 양을 잘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불려서 갔더니 이상한 사람이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왕이 될 거라고 말한단 말이예요. 그 이후 얼마 만에 왕이 되었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15년 안팎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때 잘 나갔죠. 국방장관까지 올라가서 왕의 사위가 되기도 했지만 이내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심한 고난의 길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나와 죽음은 한 걸음밖에 안된다는 고백을 남길 만큼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갔다가 신분이 들통나는 바람에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척 해서 간신히 빠져 나옵니다. 얼마만한 고난의 길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걷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접어놓고 무조건 매달려 때를 써 봐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왜 맞는지 아세요? 내 신앙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때를 쓸 때 앞뒤 안 가립니다. 무조건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매어 달립니다. 우린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까? 해도 괜찮습니다. 철이 조금 들었다면 기도할 때 한마디만 더 붙이면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어려서... 그런 다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제쳐 놓고 무조건 매달리십시오. 그건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내 뜻대로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인내하고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요셉이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매달리며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는 기도가 조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큰 목표고 작은 목표는 감옥에서 내보내 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다면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요셉아 힘이 드느냐?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참을 수가 없겠니? 조금만 참으면 내가 정해 놓은 때가 되면 네가 나와서 온 민족을 구원해 내야 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해 내야 한다. 그 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 조금 더 참을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요셉 그것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요셉은 전혀 몰랐지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것이었던 말이예요.

요셉은 자기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시련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시련 속에 두셨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그 깊고 깊은 지하 감방에서 순식간에 국무총리까지 올려버리는 것이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절초풍한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누굴까요? 보디발의 아내죠. 그 얘기를 왜 기록하지 않았는지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풍성하게 갚아주신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내가 좀 더 인내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조금씩 힘을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형통하였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우리가 뭘 배울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의 이야기를 실컷 해 놓고 요셉처럼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 출세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참 잘못된 겁니다. 아니면 요셉처럼 이렇게 되려면 꿈을 잘 꾸어야 합니까? 꿈을 잘 꾸려면 잠을 자야죠. 잠도 적게 자면 꿈을 잘 안 꾸니까. 잠이 늘 모자라서 가서 눕기만 하면 잠들어 버리고 새벽기도 가야 된다고 발딱 일어나시는 분들은 꿈꿀 겨를이 없어서 못 꾸니까.

요셉처럼 출세하려면 꿈을 꾸야 합니까? 아니요, 그런 얘긴 아닙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되었고,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총리가 되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느냐 이런 것 찾지 마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어 가셨느냐 이것 생각하셔야 합니다. 요셉에게 이런 고난을 견디어 내라고 하시면서 그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당한 고난이 요셉이 당한 고난보다 더 크다면 요셉보다 더 위대한 계획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에 미칠 것이 아니지만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생각을 해 봅시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라는 기도가 정말 아름다운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죠.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그렇다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인내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